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 AI 콘텐츠 더해 도심 밝힌다

'미디어 아트 센터' 연말 개관...창의도시간 예술·산업 등 상호교류 ACC·금남로 일대 창의벨트 구축...문화예술 행사 연계 변화 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가 미디어아트로 도심 밝길에 밝히고, 기존의 인프라에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더해 명실상부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 예술, 디지털 기술 결합의 기지가 될 미디어아트 센터(Art & Media Technology·AMT 센터)가 올해 말 광주 남구 천변대로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는 국비와 시비 145억원씩 2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9700여㎡ 규모로 들어선다.

센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예술과 기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교류하는 국제적·실용적 창의공간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센터에는 민주·인권 등 광주 정신을 표현하는 '디지털아트관'과 세계 예술가 등이 가상과 현실을 넘

나들며 교류하는 '텔레포트관', 세계 기록 유산인 5·18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하는 '딥 스페이스' 등이 조성된다.

센터 외벽에는 60억원을 투입해 광주 랜드마크가 될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를 합친 말로 건물 외벽에 조명 등을 활용해 영상을 구현하는 기법이다.

광주시는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과 금남로 일원에서 AMT 센터까지를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로 구축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 일대 1권역에는 '광주 생각(Spirit)'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향유 공간, 금남 공원과 광주천 일대 2권역에는 '광주 치유(Heal)'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갤러리로 연출한다.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전당 앞 민주광장 분수대는 미디어아트로 '빛의 분수'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해 구도심의 활성화

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놀이터 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기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하는 변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트광주21, 대인예술시장, 아트피크닉, 예술의 거리 등 지역 문화행사를 집약하고 이를 연결해 투어형 관광축제의 장을 만들고, 여기에 첨단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고품격 예술행사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곳곳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광주의 밤을 밝히는 얼굴이 될 것"이라며 "투어형 관광 축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품격 예술 행사로 미디어아트가 문화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4년 12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돼 2019년 부의장 도시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는 미디어아트 16개국 17개 도시를 포함해 문학, 음악, 민속공예, 디자인 등 7개 분야에 80개국 246개 도시가 지정됐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치유(Heal)'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갤러리가 들어서는 광주천 일대 조감도.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26~27일 발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전망...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정 여부 주목

정부가 이르면 2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일정 관련 질문에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이 부분을 정리해 일정을 정확히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는 2주씩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

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던

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편안) 원래 금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초안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를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글피(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같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

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국가 자긍심은 역대 최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행복감이나 경제 상황 인식이 더 많이 악화됐다. 이에 비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나 국가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도 나아졌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다.

23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0~10점으로 측정된 행복감은 6.4점으로 전년도(6.5점) 보다 하락했다. 특히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

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었다.

현재 본인의 경제적 안정 정도는 10점 만점에 4.8점으로 1년 새 0.2점 떨어졌고 향후 본인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5.5점에서 5.4점으로 내렸다. 또한 건강상태 점수는 1~5점 중 3.6점으로 0.1점 하락하는 등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웰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행복감(0~10점)은 2019년 6.7점에서 지난해 6.4점으로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6.1점에서 6.0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5.2점에서

5.1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비해 남성은 행복감(6.4점)과 사회적 지위(5.3점) 점수는 변동이 없었고 삶의 만족도는 5.9점에서 6.0점으로 오히려 올라갔다.

현재 경제상황 안정 정도는 0~10점 중 19~29세가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4.6점으로 뒤를 이었다. 19~29세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은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경제적 안정 점수가 각각 0.3점, 0.4점 떨어졌다. 30대(5.0~5.0점), 40대(5.1~5.1점), 50대(5.2점~5.1점)의 경제적 안정도 점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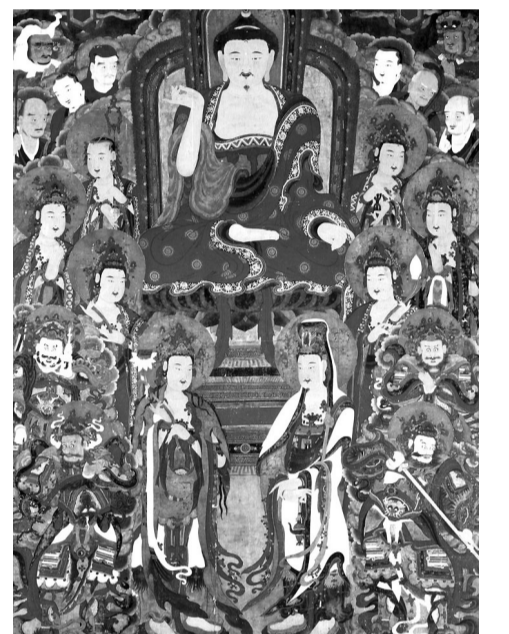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문항의 응답은 1~4점 중 평균 3.1점이었다. 이는 전년도 2.9점에서 0.2점 상승한 것으로,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기준 최고치였던 2013년(3.0점)과 2018년(3.0점)도 뛰어넘었다.

/연합뉴스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 보물된다

18세기 후반 호남지역 불화

18세기 후반 호남지방의 불화를 대표하는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가 보물로 승격된다. 지난 1994년 무렵 도난당했다가 2006년 극적으로 회수된 바 있어 이번 보물 승격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

장성군에 따르면 해당 문화재는 오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2066호)의 후불탱화로 가로 234.2cm, 세로 338.7m 크기다.

제작배경은 복장낭(腹藏囊·복장품을 넣어 탕화에 달아 놓은 주머니) 속 발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환월당 민숙이 돌아가신 봉주와 외조모 유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했다.

제작 시기는 1775년이며, 당시 남도의 대표적인 화승 색민을 비롯해 총 11명의 화승(畫僧)들이 참여했다. 색민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당대 가장 뛰어난 화승인 의겸의 화풍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안정감있는 구도와 주제를 극대화시킨 짜임새 있는 구성, 섬세한 인물 묘사, 담체 기법을 활용한 채색, 파스하고 격조있는 색감 등이 특징이다.

현재 아미타회상도는 백양사 리모델링 공사로 잠시 불갑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오는 8월 무렵 다시 백양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문화재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국가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투자 하실분 수도권

경매 입찰/낙찰물건
경매 직전 부동산
급매로 나온 부동산
20년 노하우

최선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조병주(311108-1XXXXX, 2021년 1월 6일 사망,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64, 108동 302호(지평동, 라인동신아파트)의 법정 상속인 조철영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51호로 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여 2021년 2월 15일자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조병주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 한정승인인: 조철영
• 재판청고장소: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178-405동 703호 (라운프라이빗 아파트)

산행안내

2월 28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함백산"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추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3월7일(일)
▲광주Kj산악회 3월7일(일) 포항&해파랑길18구간·아가리 및·해오름유전관대&근룡산 176.9m,오봉산178m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추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